

2021년 상반기 경남지역 고용동향

2021. 8

창원상공회의소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본 조사는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경남지역 사업장과 근로자의 규모별, 업종별 고용동향과 퇴직 후 이동경로 등을 파악해 지역의 고용 지원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를 활용한 분석
 - 고용보험DB는 고용보험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로써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신속하고 세분화된 분석에 활용하기 용이함.
 - 고용보험DB 법적근거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고용보험통계: 승인번호 제327002호)
 - 피보험자의 포괄범위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 ‘상용’, ‘계약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15시간) 미만인 자,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고용보험DB 이용 시 유의사항
 - 분기 중 최신 월의 통계는 잠정치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 고용보험DB는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대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은 부분(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있으므로 이용 시 유의
 - 서비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대체로 높아 전체 동향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3. 조사기간

2021년 8월 10일 ~ 8월 12일

4. 조사사항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규모별, 업종별)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수(규모별, 업종별)
- 고용보험 상실자의 재취득 경로(지역별, 업종별)

Ⅱ. 경상남도 고용 동향

1. 경상남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현황

1) 경상남도 규모별 근로자 수 현황

- 2021년 상반기 말 기준 경남지역 고용보험¹⁾에 가입한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일용직 근로자 제외) 수는 79만 3,266명임.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6,290명(+2.1%) 증가한 수임.

규모별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이 22만 4,92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31만 542명(+2.4%),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0만 4,079명(+2.4%), ‘300인 이상’ 15만 3,724명(+0.6%)임.

경남 규모별 근로자 수

(단위 : 명)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2021 상
경상남도	743,338 (-0.9%)	737,661 (-0.8%)	767,905 (4.1%)	776,976 (1.2%)	793,266 (2.1%)
10인 미만	199,374 (2.8%)	201,660 (1.1%)	213,691 (6.0%)	219,103 (2.5%)	224,921 (2.7%)
10인 이상 100인 미만	296,847 (0.1%)	293,468 (-1.1%)	301,097 (2.6%)	303,385 (0.8%)	310,542 (2.4%)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12,142 (-7.6%)	109,557 (-2.3%)	105,661 (-3.6%)	101,680 (-3.8%)	104,079 (2.4%)
300인 이상	134,975 (-2.4%)	132,976 (-1.5%)	147,456 (10.9%)	152,808 (3.6%)	153,724 (0.6%)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반기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1)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10조 및령 제2조, 제3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외국인근로자(재외동포의 체류자격을 가진자 중 보험가입신청자, 영주의 체류자격을 가진자는 제외)

2) 경상남도 업종(대분류)별 근로자 수

- 업종별(대분류) 근로자 수 동향을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말 경남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가운데 제조업 근로자 수는 0.2% 감소한 32만 8,516명을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 근로자 수는 40만 9,751명으로 3.7% 증가했음. 건설업 근로자 수는 3만 9,145명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음.
- 상반기 말 기준, 경남 사업장 수는 15만 5,126개로 전년 대비 9.2% 증가했음. 근로자 수 증가와 비교해 사업장 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5.11명으로 전년 대비 0.36명 감소했음.
- 업종별로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0.2% 감소한 반면, 사업장 수는 3만 2,113개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음. 제조업의 근로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에도 사업장 수는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2017년 상반기 기준 11.91명에서 올해 상반기는 10.23명을 기록해 4년 사이 사업장 당 근로자 수가 1.68명 줄었음.
-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사업장 수도 8만 2,289개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음.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와 사업장 수가 함께 증가한 가운데, 사업장 수 증가폭이 두드러져 사업장 당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0.09명 감소한 4.98명을 기록했음.
- 사업장 당 근로자 수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기타 등 모든 업종에서 이루어졌음. 이는 경남의 근로자 수 증가에 비해 사업장 수의 증가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임.
사업장 당 근로자 수 감소가 지속되는 주된 요인은 자동화의 진전과 인력 유지에 따른 제도적 부담이 커진데 따른 것임. 이러한 경향은 제조업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또 한편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전 및 각종 지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증가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됨.

경상남도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장 수 동향

(단위 : 명, %)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2021 상
경상남도	근로자 수	743,338 (-0.9)	737,661 (-0.8)	767,905 (4.1)	776,976 (1.2)	793,266 (2.1)
	사업장 수	140,546 (3.8)	143,142 (1.8)	135,305 (-5.5)	142,021 (5.0)	155,126 (9.2)
	평균 근로자 수	5.29	5.15	5.68	5.47	5.11
제조업	근로자 수	351,390 (-5.6)	334,078 (-4.9)	335,760 (0.5)	329,150 (-2.0)	328,516 (-0.2)
	사업장 수	29,502 (-1.4)	29,918 (1.4)	30,445 (1.8)	31,238 (2.6)	32,113 (2.8)
	평균 근로자 수	11.91	11.17	11.03	10.54	10.23
건설업	근로자 수	37,187 (1.8)	36,835 (-0.9)	36,902 (0.2)	37,645 (2.0)	39,145 (4.0)
	사업장 수	38,107 (5.7)	39,887 (4.7)	27,266 (-31.6)	29,775 (9.2)	37,107 (24.6)
	평균 근로자 수	0.98	0.92	1.35	1.26	1.05
서비스업	근로자 수	340,789 (4.1)	352,866 (3.5)	380,473 (7.8)	395,278 (3.9)	409,751 (3.7)
	사업장 수	70,199 (4.9)	70,523 (0.5)	74,609 (5.8)	77,702 (4.1)	82,289 (5.9)
	평균 근로자 수	4.85	5.00	5.10	5.09	4.98
기타	근로자 수	13,972 (0.1)	13,882 (-0.6)	14,770 (6.4)	14,903 (0.9)	15,854 (6.4)
	사업장 수	2,738 (6.1)	2,814 (2.8)	2,985 (6.1)	3,306 (10.8)	3,617 (9.4)
	평균 근로자 수	5.10	4.93	4.95	4.51	4.38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는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함.

2. 경상남도 제조업 근로자 수 현황

- 2021년 상반기 경남 제조업의 업종별 근로자 수는 ‘기계 및 장비’ 6만 1,568명, ‘기타 운송장비’ 6만 3,053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3만 4,480명, ‘금속가공제품’ 3만 4,851명, ‘전기장비’ 2만 6,022명 등임.

- 업종별 근로자 수 증감을 보면, ‘전자부품’(+8.3%), ‘전기장비’(+7.8%), ‘섬유제품’(+5.1%), ‘금속가공제품’(+4.8%), ‘식료품’(+4.0%), ‘의료·정밀기기’(+3.9%) 등의 제조업은 근로자 수 증가를 보였음. 반면, ‘기계 및 장비’(-10.3%), ‘1차 금속’(-1.1%), ‘기타 운송장비’(-0.5%)는 근로자 수 감소를 보였음. 이들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 근로자 수가 증가했음에도 경남 전체 제조업 근로자 수가 감소를 보인 것은 근로자 수 비중이 큰 ‘기계 및 장비’와 ‘1차 금속’ 제조업이 근로자 수의 감소폭이 컸기 때문임.

경남 제조업 업종별 근로자 수 동향

(단위 : 명)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2021 상
제조업	351,390 (-5.6)	334,078 (-4.9)	335,760 (0.5)	329,150 (-2.0)	328,516 (-0.2)
기계 및 장비	82,124 (-19.1)	66,428 (-19.1)	69,722 (5.0)	68,620 (-1.6)	61,568 (-10.3)
기타 운송장비	63,923 (-0.6)	64,701 (1.2)	64,719 (0.0)	63,364 (-2.1)	63,053 (-0.5)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034 (-5.2)	34,699 (-1.0)	34,876 (0.5)	34,392 (-1.4)	34,480 (0.3)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가구 제외)	36,824 (1.2)	35,587 (-3.4)	34,929 (-1.8)	33,264 (-4.8)	34,851 (4.8)
전기장비	22,261 (0.1)	21,718 (-2.4)	21,854 (0.6)	24,134 (10.4)	26,022 (7.8)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4,542 (-0.6)	23,183 (-5.5)	22,748 (-1.9)	21,189 (-6.9)	21,602 (1.9)
식료품	14,842 (1.3)	15,264 (2.8)	15,704 (2.9)	15,393 (-2.0)	16,010 (4.0)
1차 금속	17,318 (-1.7)	16,761 (-3.2)	15,918 (-5.0)	14,288 (-10.2)	14,133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99 (0.3)	9,605 (2.2)	9,879 (2.9)	9,840 (-0.4)	10,652 (8.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약품 제외)	9,282 (1.7)	9,204 (-0.8)	9,137 (-0.7)	8,912 (-2.5)	9,145 (2.6)
비금속 광물제품	7,503 (1.0)	7,472 (-0.4)	7,045 (-5.7)	6,716 (-4.7)	6,771 (0.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5,507 (1.0)	5,617 (2.0)	5,602 (-0.3)	5,692 (1.6)	5,915 (3.9)
섬유제품 (의복제외)	5,420 (-8.3)	5,328 (-1.7)	5,267 (-1.1)	5,187 (-1.5)	5,449 (5.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3,930 (-1.1)	4,059 (3.3)	3,920 (-3.4)	3,978 (1.5)	4,071 (2.3)
기타제품	13,481 (7.4)	14,452 (7.2)	14,440 (-0.1)	14,181 (-1.8)	14,794 (4.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기타제품 제조업에는 목재 및 나무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음료, 가구, 의복,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포함.

3. 경상남도 서비스업 근로자 수 현황

- 2021년 상반기 말 경남 전체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업의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40만 9,751명으로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섰음. 업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11만 8,416명으로 가장 많고, ‘도매 및 소매’ 4만 7,341명, ‘전문·과학 및 기술’ 3만 5,771명, ‘교육’ 2만 2,906명, ‘부동산’ 2만 9,746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2만 4,456명 등임.

경남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

	2016 상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서비스업	340,790 (4.1)	352,866 (3.5)	380,474 (7.8)	395,278 (3.9)	409,751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90,176 (4.9)	94,133 (4.4)	103,889 (10.4)	111,487 (7.3)	118,416 (6.2)
도매 및 소매	41,033 (3.4)	42,588 (3.8)	44,311 (4.0)	45,707 (3.2)	47,341 (3.6)
전문, 과학 및 기술	31,344 (1.0)	31,452 (0.3)	32,516 (3.4)	34,005 (4.6)	35,771 (5.2)
교육	16,729 (3.6)	19,062 (13.9)	22,216 (16.5)	25,318 (14.0)	26,906 (6.3)
부동산	23,330 (0.2)	23,972 (2.8)	27,097 (13.0)	28,315 (4.5)	29,746 (5.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681 (-0.5)	25,856 (-3.1)	27,145 (5.0)	25,454 (-6.2)	24,456 (-3.9)
숙박 및 음식점	22,968 (13.5)	24,843 (8.2)	26,843 (8.1)	28,459 (6.0)	28,931 (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자원 및 임대	25,767 (4.6)	25,933 (0.6)	25,579 (-1.4)	24,615 (-3.8)	25,816 (4.9)
운수 및 창고	20,239 (8.4)	22,271 (10.0)	25,929 (16.4)	26,797 (3.3)	26,621 (-0.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16,079 (4.3)	15,703 (-2.3)	16,549 (5.4)	16,958 (2.5)	17,378 (2.5)
금융 및 보험	15,299 (-0.5)	15,477 (1.2)	15,870 (2.5)	15,857 (-0.1)	15,634 (-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6,597 (10.1)	6,832 (3.6)	7,492 (9.7)	7,186 (-4.1)	7,212 (0.4)
정보통신업	4,547 (8.6)	4,744 (4.3)	5,037 (6.2)	5,120 (1.6)	5,523 (7.9)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

※ 연(年)말 상시(상용+임시) 근로자 기준, 일용근로자 및 임의가입 자영업자 제외

- 근로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던 업종은 비중이 가장 큰 ‘보건업 및 사회복지’가 6.2%로 나타나 전체 서비스업 근로자 수 증가를 이끌었음. 또 ‘정보통신’(+7.9%), ‘교육’(+6.3%), ‘전문, 과학 및 기술’(+5.2%), ‘사업시설 관리 및 지원’(+4.9%) 등의 업종 근로자 수 증가도 눈에 띈었음.

4. 경상남도 근로자 취업 및 퇴직 현황

- 2021년 상반기(누적) 취업자 수는 22만 6,889명으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음. 이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만 1,118명으로 전년 대비 15.3% 늘었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3만 7,722명으로 7.3% 증가했음.
- 경력취업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각각 11.2%, 9.5%로 함께 증가했지만, 신입취업의 경우 제조업은 전년 대비 52.8%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6.8% 감소했음.

업종별 취업 및 퇴직자 수

(단위 : 명, %)

	2017 상	2018 상	2019 상	2020 상	2021 상
취업	212,111 (-6.1)	208,650 (-1.6)	222,092 (6.4)	205,276 (-7.6)	226,889 (10.5)
제조업	85,138 (-12.8)	74,557 (-12.4)	69,145 (-7.3)	61,676 (-10.8)	71,118 (15.3)
서비스업	111,501 (-0.7)	119,409 (7.1)	136,966 (14.7)	128,296 (-6.3)	137,722 (7.3)
신입	22,742 (-15.3)	22,051 (-3.0)	25,645 (16.3)	23,917 (-6.7)	26,060 (9.0)
제조업	7,626 (-23.1)	6,092 (-20.1)	6,409 (5.2)	6,056 (-5.5)	9,256 (52.8)
서비스업	14,046 (-10.4)	14,927 (6.3)	18,096 (21.2)	16,846 (-6.9)	15,707 (-6.8)
경력	189,369 (-4.8)	186,599 (-1.5)	196,447 (5.3)	181,359 (-7.7)	200,829 (10.7)
제조업	77,512 (-11.7)	68,465 (-11.7)	62,736 (-8.4)	55,620 (-11.3)	61,862 (11.2)
서비스업	97,455 (0.9)	104,482 (7.2)	118,870 (13.8)	111,450 (-6.2)	122,015 (9.5)
퇴직	211,987 (-6.2)	203,963 (-3.8)	208,681 (2.3)	206,687 (-1.0)	209,748 (1.5)
제조업	94,861 (-9.8)	79,774 (-15.9)	67,858 (-14.9)	69,860 (3.0)	67,292 (-3.7)
서비스업	101,102 (-3.5)	108,556 (7.4)	124,141 (14.4)	121,038 (-2.5)	124,996 (3.3)

<자료 : 고용보험DB, 고용노동부>